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도 없이 한 찰나예요

17면에서 계속

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이게 때로는 화면, 또는 말 나오는 거, 또는 끄고 켜는 거, 또 높이고 줄이는 거, 이거와 텔레비전 전체 이 자체가 바로 됩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조절을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방송국? 허허허,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와! 방송하는 데서 그걸 연결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렇듯이 우리 인체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인체 안에 수많은 생명의 그 의식들이 아주 꼭 찻습니다. 꼭 찻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꼭 차서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또 만나고 또는 내가 어디서 오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다섯 가지 종합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뇌에 연결이 되는 게 누진(漏盡)입니다. 그 누진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제, 녹음이 다 되고 입력이 다 돼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인간 몸이 사대로 통신이 돼가지고 그 사대 안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통신이 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깥의 일들이 보고 듣고 들리고 대뇌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가지고선 바로 찰나에 이게 바로 되는 일입니다. 왜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그다음 까닭에 인간 몸통이 하나가 모두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로보트가 컴퓨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듯이 자기가 생각을 내서 하는 게 없어요, 이 몸체 안의 생명들은, 통신이 돼야만 그것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그 통신이 끊어졌다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는데 들이쉬 수가 없고, 내쉬는데 내쉬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뜻이나 똑같죠. 한쪽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체의 이 모두를 볼 때, 보세요. 보는 거, 이것을 천안통(天眼通)이라고 합니다. 말할 땐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서 이겁니다.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天耳通), 남의 마음을 아는 것, 타심통(他心通),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것을宿命통(宿命通)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그냥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보고 돌아가고 걸어오는 것도 발자취를 짚어지지 않고 오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듣는 것도 들을 뿐이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들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꾸자꾸 끌어당겨서 쥐고 놓지를 않고 사는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마음으로 자꾸 오업(五業)을 짓는 거죠. 다섯 가지 업을 짓는

거죠. 그 업 속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영계성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종합해서 들어있노라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와, 보고 듣고 들이는 거와, 안에서 듣고 움직여지는 것이, 양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모든 게 작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대뇌 누진이란 애깁니다. 누진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대뇌에서 최후를 통해서 모든 게 사대로 퍼지는데, 통신이 되는 건데 이게, 본래, 그런데 이 누진이 바로 입력을 다 해가지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그 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녹음이 되는 누진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난 누진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사 견도에 그렇고, 이 모든 살아나가는 거, 수명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전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녹음이 돼 있는 바로 개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누진이 돼서 거기 전부 녹음이 돼서 있는 줄 모르고... 그럼 거기서 차례차례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가 되 녹음을 해야 그놈의 게, 이 누진에서 녹으면 게, 즉 말하자면 입력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대중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멍멍하게 계십니까? 아,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멍멍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말하는 데 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림,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지금 난 요점이 났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내 몸통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전부 모습도 차원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에서 통신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움직여질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자라는 데를 채워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 내 마음에서 모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입력을 했을 때 바로 직속으로 통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속으로 화(化)해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원자로 된단 말입니다, 그쪽 원자, 이렇게 왕래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찰나입니다.

다.

이런데도 사람이라면 99%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 몸통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살고 나가는지, 그렇게 구성된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 그것들을 통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모르죠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는 죽기 살기 그냥 매달리면서 육체로, 말로 그냥 한뫼 하죠. 그냥 “아이구, 불쌍한 녀아 왜 이러느냐, 아이고, 네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주어져서 자유의 권리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한마음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한생각이 그렇게 보살보다 화할 수 있고, 법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보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문수가

되고 말입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가 되고 움직여졌다 하면 보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잊고저게 그림을 그리는데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모습을 놓고서 여럿이서 다 똑같이 그린다 합니다, 시험을 보느라고. 그렇듯이 우리도 다 제각기 똑같아요, 이 우주의 섭리가 다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크고 작을 뿐이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깨치면 모두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아주 그냥 딱 직결이 돼 있었어요. 뭐 그거는 이 우주의 근본이 이 행성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애깁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듯 이 행성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이게 보이지는 않죠,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마음의 능력의 줄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궤도를 그냥 들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냥 수레바퀴에 얹혀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안에 별레로서 지구 바깥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쩍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쩍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접 당하지 않았고 “내가 살 만 한데 뭘 그래? 그까짓 거 뭐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공이란 자기 몸통이와 움직여지는 거와 생명과,근본과 똑같이 한데 합쳐진 거를, 지금 육(肉) 안에 들은 생명들도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아, 자기가 자기 무시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하라죠. 뭐, 누굴 믿어요, 지금? 허공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에 어떻게 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요다음에 그 소임을 맡아가고 나오게 되는데 그림 소임을 저절로, 개로 소임을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개 소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건 저절로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 이 소임을 너 맡아라, 쥐라 이라고 했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의 모습 쓰고 나오는 대로 그 소임이 주어지니까요. 아주 괴짜죠. 우습죠. 염소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염소의 그 소임을 다 해야죠.그렇듯이 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자기 하는 소임은 다 옳으니깐요. 인간으로 나온다면 인간의 소임을 다 해야 하고요. 인간들도 천차만별인데 그 소임 소임

따로따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조금도 우연이 없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법도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의 차원도 바로 이 세상 차원이거나 같다. 배도 모두 받아다가 크고 작은 걸 나누어 놓는다.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강통 있는 데는 강통으로 채워지고 금(金)이 있는 데는 금으로 채워진다. 사람들도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상인들이 정치인들 하는 데에 끼일 리가 없고, 정치인이 상인들한테 끼일 리가 없다. 강통이 금방에 갈 리가 없고 금이 강통전에 갈 리가 없다.

그러니 인간의 차원도 역시 그러하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한가족이 모여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니까. 강통이라면 강통, 금이라면 금,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이나 어떠한 한가족 속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가 자기 각자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건 왜? 그 상대방 탓만 아니니까 말입니다.

왜냐? 그 강통과 그 강통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니까, 이쪽이 어떠한 문제가 나면 이쪽도 속이 상하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속씩이 고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

다. 그거를 몽땅 없애려면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그 녹음된 거를 지워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셔야 내가 또 강력히 나가죠. 허허허.

지금 의학적으로나 다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모두 과학적으로 되는 이치와 상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게 하는 그런 누진(漏盡)에 관한 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요. 누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우주를 갖다가 요만한 면경알로다가 다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거짓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만하게 아주 좁쌀 알갱이만한, 좁쌀 알갱이도 없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좁쌀 알갱이라고 합니다. 좁쌀 알갱이만한 면경이 이 대뇌에 들어있어서 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팎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가 다 거기 흠뻑 다 들어있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녹음이 돼서 스크린처럼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무르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직여지게 하듯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를 하려면 한 찰나에 그냥 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어린이가 들어서 기만 하면 낙태가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낙태가 되려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 그럴 때 그 순간 들었을 때 벌써 순간 거기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빠르니까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나! 그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우연히 된 걸로도 알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된 줄 알아도 모르고 ‘아유.’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부처님 원력이 이렇게 참 광대해!’ 하고 정말 좋고 기쁘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전력이 이 순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순간 버튼을 누를 때에 불은 반짝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이 봅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